

# 수영대회 기간 집회·시위 자제...성숙된 시민의식 보여주자



경기장 주변 공무직노조 등 집회 신고 잇따라 광주시·경찰 긴장

안전사고·이미지 실추 우려...시민들 "세계인의 축제 힘 모아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전후해 경기장 주변에 각종 집회 신고가 잇따르면서 광주시와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안전 사고나 광주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대회 기간 시위·집회 자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 등 10여개 단체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12~18일) 남부대 등 대회 경기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12일 개막식이 열리는 광주여대 입구에

서 오후 5~8시 공무직노조·건설노조·공공연대노조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2곳, 북구 누문동 재개발사업 인가 규탄 단체 '광주희망제작소', 5월 단체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무직노조는 같은 시간 국제수영장이 있는 남부대 인근과 선수촌 앞, 광주희망제작소는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 사거리와 광주여대에도 동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또한 10일부터 8월7일까지 공무직노조는 아티스틱 수영 종목이 진행되는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인근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고, 광주희망제작소도 남부대-광주여대-조선대 사거리에서 28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고와 달리 실제로 집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지만 신고기간에는 언제든 집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에 집회 신고가 집중됨에 따라 경찰력이 분산돼 자칫 생활치안이 소홀해지거나 광주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신고를 한 만

큼 경찰 입장에서는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가적 행사 기간인 점을 고려해 교통 흐름을 막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와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노동들은 성향이 과격하지 않아 불상사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차분한 분위기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경기장·관광지 어떻게 가나요?...외지인 길 안내 배려 아쉽다

주요 관문 안내 인력·표지판 없어 광주 찾은 방문객들 큰 불편  
인포메이션 포인트 안내원에 묻자 "포털 지도 이용하라" 답변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맞아 광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맞춤형 길 안내' 등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버스터미널 등 광주의 주요 관문에는 주요 경기장이나 관광지, 호텔 등을 알려주는 안내인력은커녕 안내 표지판조차 없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을 둘러본 결과, 광주 송정역 KTX역사 로비에는 영어로 적혀있는 인포메이션 포인트(Information Point)가 설치돼 있었지만 선수단 전용시설이 뿐, 일반 방문객에 대한 안내시스템은 없었다. 송정역사 안팎에도 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주요 경기장과 관광지를 안내하는 이정표나 표지판, 대중교통 이용 안내문 등 외지 방문객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4명이 근무 중인 인포메이션 포인트를 방문한 안내원에게 수영대회 경기장으로 가는 방법을 묻자, "네이버 지도에 다 나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은 외국인 방문객이 문의해도 이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질문에도 "외국인도 스스로 경기장이나 숙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안내원들은 "이곳(인포메이션 포인트)은 수영선수권에 참여하는 선수단을 마중하고, 이들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역할만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사정은 비슷했다. 버스하차장 앞 고객행복센터에 수영선수권대회 안내물만 비치돼 있을 뿐 경기장이나 호텔, 주요 관광지 등을 가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했다. 특히 입구가 많고 복잡한 구조 탓에 버스터미널을 찾은 내국인조차도 출입구 등을 찾지 못하고 헤

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왔다는 경기장(여·32)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문화전당을 가려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나오는 것 자체부터 헷갈린다"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해매는데 외국인은 오죽하겠나. 외지인을 위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공항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공항에서 경기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이 없는데, 공항에서 500m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철도까지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없었다. 인포메이션 포인트가 설치돼 있었지만 송정역과 마찬가지로 선수단 전용이었고, 그나마 이곳에서 나눠주는 팸플릿에는 공항에서 경기장이나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안내조차 빠져있었다.

문화전당과 충장로 등 광주 대표 관광지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미흡하긴 마찬가지였다.

도시철도를 타고 도착한 문화전당역, 금남로 4가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연결통로는 광주시민도 헷갈릴 정도로 미로 같은 구조였다. 도시철도 역으로 갈 수 있는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시민들마저도 헤매기 일쑤였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안내판은 아예 없었다.

신규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은 "광주에는 영어 표지판이 부족한편이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역사까지 가는 방법이 적힌 영문 표지판조차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대회가 열리는 주요 경기장은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찾아가기 쉽지 않다"면서 "경기장을 오가는 시내버스 등에 눈에 띄는 표식을 붙이고, 버스정류장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임시 이정표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르신들에 보양식 대접 11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녀회원들이 초복(12일)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과 덕담을 나누며 여름철 보양식을 대접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알코올 중독 아들 살해한 아버지

농약 음독 자살 기도

80대 노인이 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25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A(87)씨가 아들 B(5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농약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는 유서를 남겨 놓고 독극물을 마셨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치매 증세가 있는 아내를 돌보았으며, 평소 아들 B씨가 도박과 채무 문제 등으로 행패 부려 힘들어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중독자인 아들의 행패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면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A씨는 3층에, 아들은 2층에 살면서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뺨 뚫린 성범죄 전과자 관리

전자발찌 찬 채 초등생 여자·엄마 성폭행 시도한 50대 체포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초등생 여자와 친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초등생 딸을 성폭행하려고 한 A(51)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B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했으며, B씨가

정신을 잃은 후 A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양을 덮쳤다. 하지만 C양은 범인의 허를 깨물고 달아나 1층 이웃에게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방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범행장소에 거주한 적이 있었던 A씨는 이 집에 모녀만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성범죄 전과자인 A씨는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으나,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탓에 주태가 활동에는 제약받지 않았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시험문제 유출 조사 마친 시교육청 감사팀 교사·학생들이 가로막고 30분 대치 '파장'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한 사립고에 대해 감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교육청 감사팀 직원들을 교사와 학생들이 가로막아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한 사립고에서 기말고사 수학문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시교육청 직원 20명과 해당 학교 교사·학생 10여 명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시교육청 특별감사팀은 시험문제 유출 감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 3학년 9개 학급 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교내 우열반 운영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감사팀이 학교운영위원회실에서 설문지를 취합한 뒤, 운영위원실 문을 나서려고 하자 교사와 학생들이 이들을 가로막으며 격렬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학생 측은 "설문조사 전 의도한 답을 얻으려는 듯 치우친 발언을 하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이다. 해당 자료는 학교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팀 직원들과 30분 가량 대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당일 오후 3시 10분께 학교를 빠져나와 교육청으로 복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자선기 지도교사로 있는 수학동아리에게 시험문제를 전해준 수학교사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으며, 감사를 가로막는 학교측의 공무원행위태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를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중심으로 구성된 특정 수학동아리에게 사전에 전달해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학교 측의 "1000여개의 연습문제 중 일부만 변형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경찰청, 여성이 불안한 환경 없앤다

취약지역 합동순찰 등 강화

광주지방경찰청이 '여성불안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까지 여성안심구역·여성안심귀갓길을 재점검하고, 3단계에 걸쳐 취약지역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안심구역은 여성 1인 가구 등이 밀집한 곳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광주에는 총 17개소가 지정돼 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 중 치안이 취약한 도로로, 67개 노선이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광주청은 1단계로 지역별 범죄 발생 사례와 112신고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기존 안심구역과 귀갓길 선정·해제 작업에 나서서 한편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카드를 재작성하고, 2단계로 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

이 자치단체와 협업체 여성 보호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3단계에는 환경개선 대상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참여 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등과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여성범죄 예방 취약지역에 대해선 CC-TV, 가로등, 반사경 우선 설치 등 범죄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권석진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불안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법원, 지역항공사 에어필립 회생 신청 기각

법원이 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에어필립은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거나 새롭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박길성)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의 영업 손실이 누적됐고 대표이사도 구속되고 모기업의 지원도 중단됐다.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심사에서도 탈락해 사업과 투

자 계획 이행이 불확실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필립에셋의 실질적인 사주이기도 한 임원씨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임씨와 필립에셋의 지분 등에 추정보전명령이 내려져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구속수소됐던 임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며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

○...일각에서는 유씨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영사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이 다른 고려사항을 내세워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을 제기.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달ตก	15:33
해질	19:49	달질	01:44

**초복**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29	보성	구름 많음	19/28
목포	구름 많음	21/27	순천	구름 많음	20/30
여수	구름 많음	21/27	영광	구름 많음	20/28
나주	구름 많음	19/29	진도	구름 많음	20/27
완도	구름 많음	20/28	전주	구름 많음	20/29
구례	구름 많음	19/30	군산	구름 많음	20/27
강진	구름 많음	20/29	남원	구름 많음	20/28
해남	구름 많음	19/28	흑산도	구름 많음	20/26
장성	구름 많음	19/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남부 먼바다	남서~서	0.5~1.5 남~남서
앞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남해 먼바다(동)	남서~서	0.5~1.0 남~남서
남해 서부 먼바다(서)	서~북서	0.5~1.5 남~남서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3:19	10:08
	15:43	23:08
여수	11:26	05:10
	--:--	18:24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21/28	21/30	21/31	22/31	22/30	22/30	22/31

**◇ 생활지수**

- 주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